|  |
| --- |
| **묵상 에세이 / 구원의 감격** |
|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목사가 되었던 윌리엄 쿠퍼(William Cowper)는 어느 고난주간을 앞둔 토요일에 자신의 교회 주보를 들여다보다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주일 설교 제목으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를 잡았는데, 마침 그 아래에 '윌리엄 쿠퍼 목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주보를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것이 깨달아져, 통곡하고 엎드려 주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묻고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하십시오.  그 대화 속에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당신을 붙잡는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대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살아 계신 주님의 대화 속에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주께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열고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이동원 |